



魯殷希 纖維作品展 The Fiber Art Exhibition by Eun Hee No

魯殷希 纖維作品展

The Fiber Art Exhibition by Eun Hee No

1986년 10월 22일~28일

가든미술관

초대일시 : 1986년 10월 22일 오후 6시

작가의 말

신선함을 내뿜는 나무,
나무들의 모임이 숲을 이루고
그 사이에서 숨쉬는 우리들,
바라보기만 하여도 가슴 뽕뽕한 그 속으로
들어가 한 그루의 나무가 되고 싶은 충동이
여기 한 올의 실과 한 조각의 천과 나무껍질 위에
물을 들고 있습니다.
내 보이기엔 부끄러운 마음으로
조심 스레 펼칩니다.

Trees shoot out sweet freshness,
Breathing among trees attiring in forest
Our heart full to the brim only
With a glance, dreams of a cypress
In so sweet a shade,
The pray discloses its coy wish here
With a ply-thread, a piece of fabrics
And a cparse bark.

현란한 色調와 함께 전개되는 自然의 숨결

金仁煥 (미술평론가)

染色 은 주지하다시피 衣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발전해 왔을 뿐만 아니라 의복의 着色·施文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약 1만년 전의 先史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염색의 역사는 기원전 3천년 경의 이집트에 이르러 麻를 원료로 하는 手織布에 쓰여졌던 것으로 전해지며, 그 이후 印度문화권에서 특히 발달해 왔다. 染料의 주원 원료는 천연염료, 특히 식물원료이나 1858년에 출현한 화학염료에 의해 염색방식에 획기적인 변혁이 가져지기도 하였다. 오늘날 이 분야는 단지 의복에 染着하는 용도의 범위를 넘어 서서 독자적인 예술로 각광을 받고 있다.

노은희 교수의 염색작품은 재료적 측면에서 대개 4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즉 다나무의 가지와 속 껍질(內皮)을 삶은 후 이것을 펼쳐서 여러겹 붙인 것, 면포에 털가죽을 이용한 氈染, 파라핀을 이용한 防染, 織緋 등의 종류로 나눈다. 어떠한 방식과 기법의 염색작품이건간에 기본하는 染法을 최대한 활용하여 작가의 독특한 개성적 특성과 동의력에 따라 제작된 작품임은 물론이다.

기법의 다채로움에 비해 소재적 측면에서의 일관된 패턴은 자연물이다. 자연 가운데서, 특히 숲 속을 찾아갈 때 거기서 볼 수 있는 나무라든지, 풀, 새 따위의 형상이 집결된 공간 안에 적요하게 펼쳐지고 있다. 표현에 있어서는 현대적인 간결함이라 할까, 축약된 아름다움이 자기 재료의 특성에 따라 다른 변화 있는 표제로서 나타난다. 다분히 추상화된 화면이기도 하다.

딱나무 皮質의 표면을 살려 手工된 작품에 있어서는 고르지 못한 粒子의 표현결함이 주는 형상들이 껍이나 古樹라고 할까한 우리의 "사라"를 느끼게도 한다. 또는 굵은 물의 織布에 현란한 색조와 함께 전개되는 자연의 숨결, 나무와 풀이 있고 새들이 있는 풍경들은 한결 세련된 맛과 멋을 풍기기도 하는 대조적인 표현기법을 병행하여 시도하고 있다.

재료 자체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표현발상이 돋보이는 화면은 자연의 실그려움을 한껏 드러내기도 하거니와, 아라베스크한 색면결함에 의해 과장적인 형상리듬을 보이는 화면은 일반의 회화와는 다른 장식적 표현기능의 二重性을 지녔다. 작가는 염색의 전통적 기법과 육대하는 가운데서 새로운 기법개발에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독자적인 표현영역의 모색에 부심해 왔다.

대학課程에서 후진양성에 노고하고 있는 교육자로서, 작가로서, 두가지 일을 동시에 감내해야 하는 입장에서 노교수의 이번 개인전은 우리 염색미술의 발전에 하나의 기여가 되리라고 믿으며, 특히 현대 염색미술의 지역적 정착에 활력소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NATURE'S RESPIRATION WITH DAZZLING COLORS

Kim In Whan (Art Critic)

As is known, dyeing has been developed in its close connection with a human being's clothing habit and shared in coloration of apparel. The origin of dyeing goes back to the prehistoric age of 10 thousand years ago. Egyptians were known to dye in handwoven linen. After that time dyeing saw a great advance in the Indian cultural area. a complete revolution in a process of dyeing made in 1858 when chemical dyes replaced natural ones mainly made from plants. Nowadays the sector of dyeing stands in the spotlight as an art, above a mere method of clothing-dyeing.

Professor No's works can be fallen into four divisions by their materials. Manyfold-piling-up of the twigs and endodermis of paper mulberries after boiled and then spread out, Dyeing in cotton with flour, Batik works and Tapestry. Every piece of her works made good use of the existing dyeing method. I think, reveals No's individuality and creativ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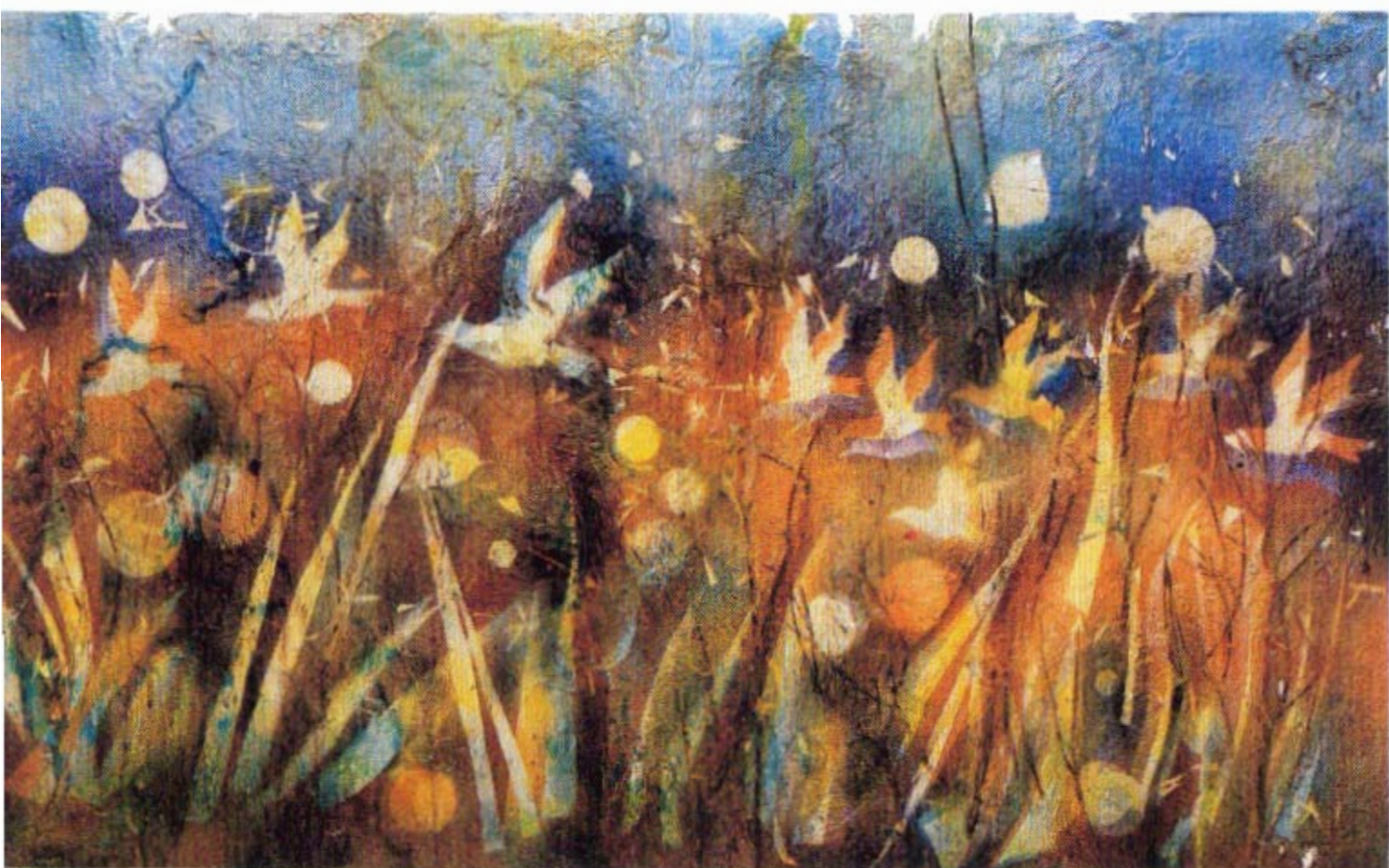
The works show the continual tone of nature in material aspect, contrasted with the variety of method. There spread out the figures of woods, grasses and birds in a tranquil space. As far as expression is concerned, a kind of modern brevity or restrained beauty comes with varied effects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materials.

Sigol, the Korean version of backcountry discloses its shy face in the works of endodermis of paper mulberries characterized by its coarseness. in the other hand, the artist tried to express nature's breath, the landscapes of woods, birds and weeds with dazzling colors on coarse woolen cloth in which a more refined beauty is flourished.

Professor No is known to make great efforts towards developing new methods and searchig for the area of her own expression while going on with the traditional dyeing methods. As a professor in college and artist, No Eun Hee will, I believe, bring a new opportunity to the development of our dyeing art through her private exhibition. Her works on show will add another vitamin for the rooting-down of modern dyeing art in local areas.



가을날 II (An autumn day II)/paper mulberry, direct dyes/300x11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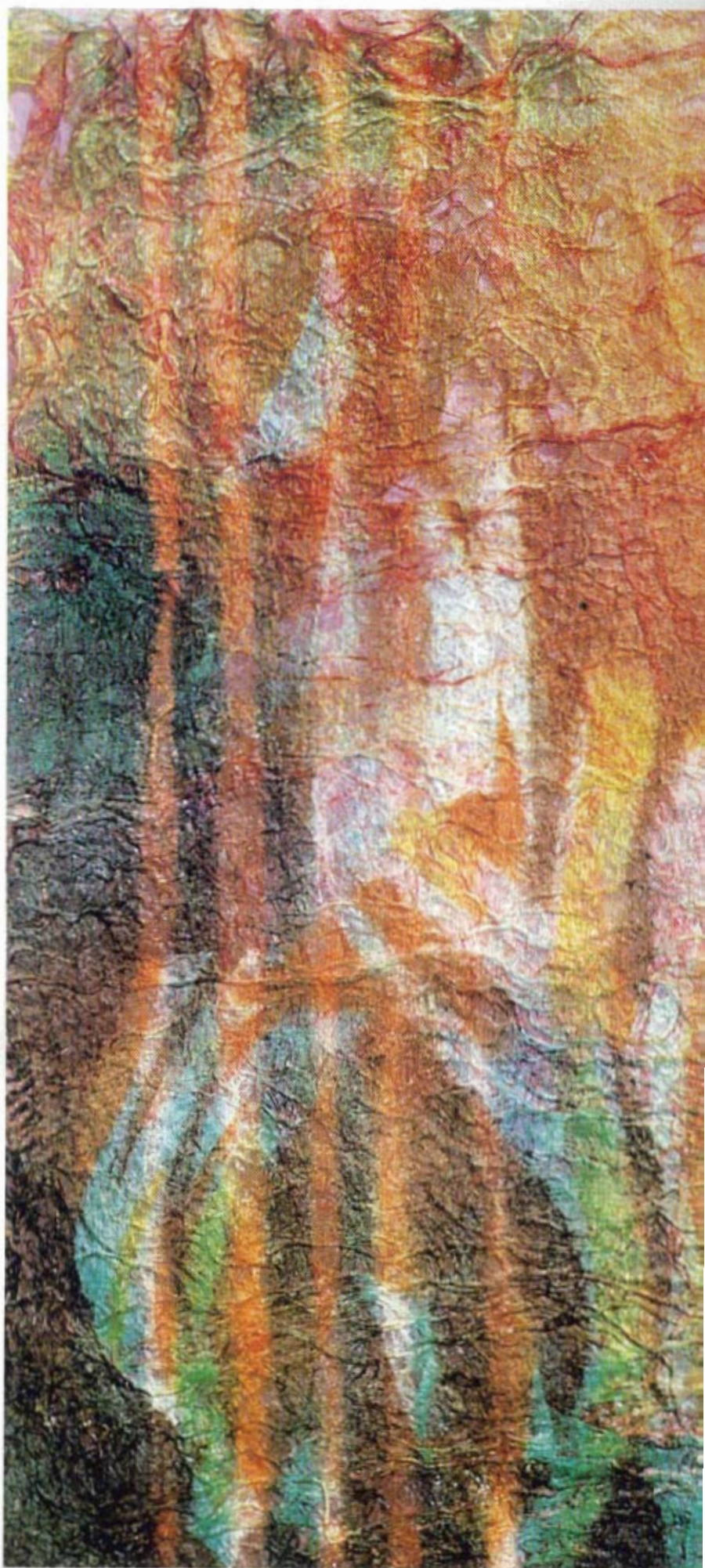
산 (A mountain)/cotton, wheat flour, direct dyes/55x55cm





감나무 I (A persimmon tree I) cotton, wheat flour, direct dyes/40x40cm





마른들판 I (A dry plains I)
paper mulberry, direct dyes/50x40cm





풀숲 (A grassy place)
paper mulberry, direct dyes / 70x4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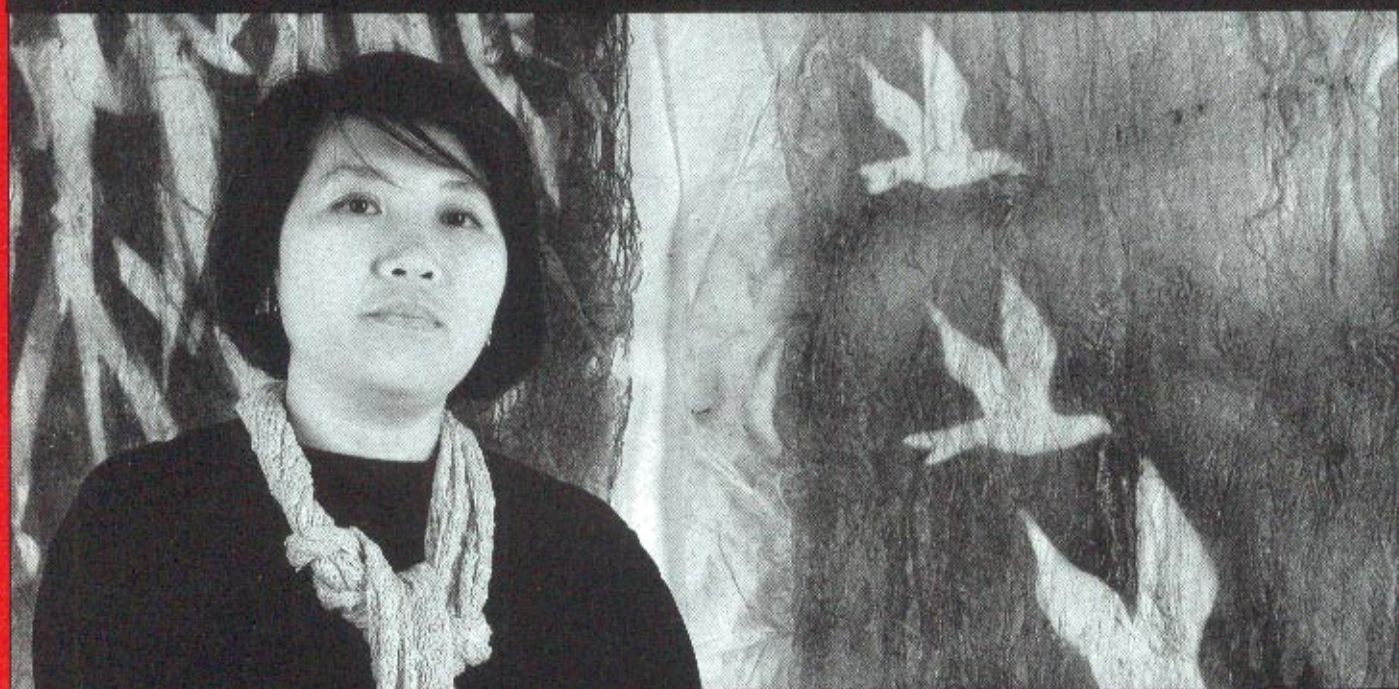




가을날 I [An autumn day I]/paper mulberry, direct dyes / 145x170x50cm



앞이 잔 나무 (A leafless tree)/cotton, wheat flour, direct dyes/40x40cm



노 은희

Eun Hee No

광주출생

조선대학교 문리과대학 응용미술과 졸업

조선대학교 대학원 미술과 졸업

1982 1회 개인전 (남도예술회관)

1983 여교수 초대전 (화니미술관)

1986 '86미술 의상전 (동방미술관)

1986 조선섬유 조형대전 (남도예술회관)

1986 2회 개인전 (가든미술관)

1977~86 한국디자인 협의회 회원전 출품

1977~86 전남산업디자인협회 회원전 출품

1977~86 조선대학교 미술 연구회 회원전 출품

1983~86 한국미술협회 회원전 출품

1983~86 영·호남미술 전람회전 출품

현재 : 조선대학교 산업대학 산업미술과 조교수

한국디자인 학회 회원

한국섬유미술비엔날레 회원

주소 : 우편번호 500 전라남도 광주시 동구 산수3동

호남아파트 B동 301호 ☎ 525-6505

• Born in Kwang Ju.

• Graduated from Dept. of Applied Art,

College of Liberal Arts and Sciences, Cho Sun University.

• Received Master of Fine Arts degree at Cho Sun University

1982. 1st Fiber Art Exhibition (Nam Do Art Gallery)

1983. Invited Exhibition for Women-professors (Funny Gallery)

1986. '86 Art Wear Exhibition (Dong Bang Gallery)

1986. Cho Sun Fiber Art Exhibition (Nam Do Art Gallery)

1986. 2nd Fiber Art Exhibition (Garden Gallery)

1977~86 Korean Designer's Council Exhibition

1977~86 Jeon Nam Industrial Design Council Exhibition

1977~86 Cho Sun University Professors Exhibition

1983~86 Korean Fine Arts Association Exhibition

1983~86 Young Ho Nam Arts Exhibition

Presently: • Assistant Professor in Industrial College at Cho Sun University

• Member of Design Association of Korea

• Member of Textile Art Biennale of Korea

Address: 301-B, Honam Apt., San Su Dong, Dong-Ku, Kwang Ju, Korea

Tel.: 525-6505

